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2019.12.19.(목) 조간</b>	<b>배포</b>	2019.12.18.(수) 10:00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<b>담 당 자</b>	성 미 라 사무관 (02-2100-2992)
	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 황 남 준(02-3145-8810)		김 필 환 팀장 (02-3145-8830)
	여신전문금융협회 본부장 배 종 균(02-2011-0602)		이 경 원 부장 (02-2011-0742)

## **제 목 :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**

- ☐ (추진배경) 카드대출 영업실태 점검 결과, 소비자에게 **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**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확인
  - ☐ (개선방향) **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 제공,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**

☐ 2018년 중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(‘카드론’)은 37조원, 단기카드대출(‘현금서비스’)은 53조원 규모이며,

○ 대출건수는 카드론이 약 734만건, 현금서비스가 약 7,015만건입니다.

☐ 2018년 중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,

○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, 문자 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있었으며,

○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·절판\*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,

\* 2~3일간 한정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됨을 안내하며 일단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 등

-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.
-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
  - 최근까지 꾸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\*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\* ❶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, ❷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, ❸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 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
-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, 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함으로써
  -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, 소비자의 카드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하여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는 등
  -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하며,
  -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\*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\* 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비용은 약 1,010억원 규모

※ 상세 내용은 「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」 (별첨) 참조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